

13일 겨울 밤하늘 수놓는 최대 우주쇼 온다

국립광주과학관, 특별 관측행사

광주 북구 거징이섬터 개최
유성우 쌍둥이자리 별뿔비
다양한 천체망원경·쌍안경
달·목성·금성·토성 등 관측
“마음에 오래 남는 추억 되길”

“날씨가 많이 춥지만 추울수록 별은 더 빛난다.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는 별비가 시민들의 추억이 되길 바란다.”

연말을 앞두고 올겨울 최대 우주쇼인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맞이하는 특별 전문행사가 열린다.

4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전문교육행사 ‘쌍둥이와 목금토성’이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주 북구 신용동 ‘거징이섬터(첨단대교 옆)’에서 개최된다.

유성(별뿔비)이란 유성체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로 떨어지면서 밝은 빛줄기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우주를 떠다니는 작은 입자인 유성체의 크기는 다양하며 매일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는 약 100톤에 이른다.

다수의 유성이 한꺼번에 떨어지며 별비처럼 보이는 천문 현상을 유성우(별뿔비)라 부르는데 이는 천체가 우주에 흩뿌린 잔해대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200 파에톤’이 우주에 흩뿌린 잔해대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유성우다.

매년 12월 중순에 만나볼 수 있으며 사분의자리 유성우(1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8월)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린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과학관 별빛전문대에서 운영되던 전문행사를 처음 야외에서 진행해 의미가 뜻깊다. 국립광주과학관 주변은 도심에서 오는 빛 공해가 심해 유성우를 관측하기 어렵다. 주변이 어두워야 더 잘 보이는 유성우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거징이섬터’를 행사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행사 운영 시간 저고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에서 관측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립광주과학관 관계자는 “거징이섬터는 주변 아파트의 불빛이 멀리 있어 광공해 영향이 적다. 또 강변이기 때문에 주변 지형지물의 고도가 낮아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극대를 이룰 것으로 학계에서 전망했다. 극대 전후로도 며칠간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 주최 측은 극대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태양 외에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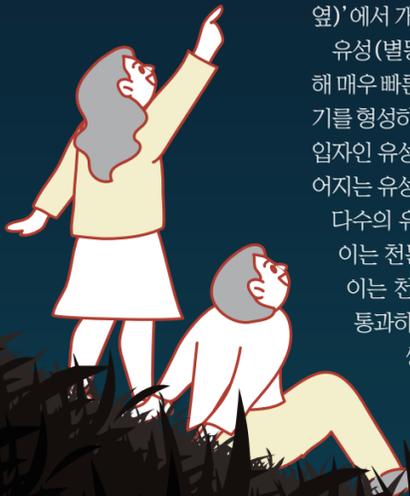
천체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전날 밤을 관측 시간으로 선정했다.

행사 참가자는 천체관측 전문가의 별자리 설명을 포함한 유성우 관측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천체망원경과 쌍안경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달과 별, 목성, 금성, 토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밤하늘을 기념할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윤오섭 국립광주과학관 연구원은 “겨울에는 밝은 1등성들이 많아 밤하늘이 더욱 아름답다. 거기에 유성우까지 더해지는 12월은 강변의 밤하늘을 즐기기에 완벽한 시기”라며 “유성우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미리 빌 소원을 준비해 오길 바란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모여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 접수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우천 시 취소되며 최종 운영 여부와 행사장소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슬기로운 New 실버생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국립광주과학관, 문해기관 특별 초청행사 ‘성료’

‘슬기로운 New 실버생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지난 3~4일 양일간 ‘슬기로운 New 실버생활’을 운영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된 이번 초청행사는 광주 소재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모집해 최종 선정된 광주희망평생교육원, 광주월산초등학교 성인문해교실, 사랑의배움터 등 총 3개 기관 80명이 참석했다.

‘슬기로운 New 실버생활’은 아이들만을 위한 곳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남녀노

소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과학관 대표 전시물 및 교육시설을 활용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뉴실버 세대의 관심사와 선호 콘텐츠를 반영해 과학관 정기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유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선임연구원은 “호남권 대표 거점과학관으로서 앞으로도 전 연령대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맞춤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출연자 공모

10~14일, 이메일 접수
차세대 명인전 공모 8명
일반공모 6팀 등 선정

국립남도국악원은 ‘2025 토요일상설’에 출연할 공연 단체 및 개인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토요일상설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이 2004년부터 시작한 대표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 및 개인은 434석 규모의 공연장인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내년도 7~12월 일정에 맞춰 1회 공연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출연단체를 선정하는 ‘일반공모’와 미래의 명인을 만나볼 수 있는 ‘차세대 명인전 공모’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공모’ 응모자격은 국악을 기반으로 공연하는 전문 예술 단체 및 개인으로, 전통음악, 전통 성악,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 또는 극작품, 전통무용, 연희 등이며, 1일 1단체 또는 개인이 70분 이상 공연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차세대 명인전 공모’ 응모자격으로는 19세 이상(접수일 기준 2005년 12월10일 이후 출생자), 40세 이하(1984년 12월10일 이전 출생자) 국악 전공자로 1일

4명의 출연자가 각각 20분씩 공연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연료는 ‘일반공모’는 500~1500만원까지(판소리 독창 및 기악 독주는 300~500만원 지급), ‘차세대 명인전 공모’는 200~500만원까지 규모와 작품 성격에 따라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참가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첨부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담당자 전자주소(gok123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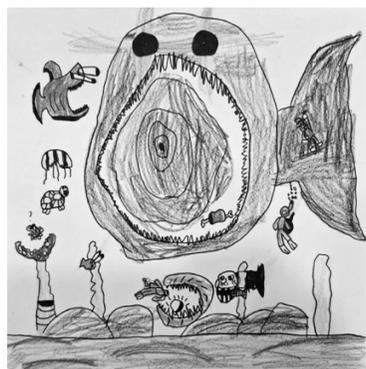
해남동초, 국제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서 38명 수상

‘내가 사랑하는 바다’ 주제로 ‘해양 생태계 보존 필요성 각인’

해남동초등학교는 지난 9월14일부터 10월13일까지 열린 제4회 ‘내가 사랑하는 바다’ 국제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에서 38명 수상자를 배출해 단체상(‘My Beloved Ocean’ Alliance) 인증서를 받았다.

국제구조개발NGO ‘휴먼인러브’가 주최·주관하고 코리안리가 후원한 이번 그림대회는 바다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많은 어른들이 공감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어린이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의 일환이다.

해남동초 1학년 천현호 학생은 주제1 우수작품상, 2학년 김가은 학생은 주제2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참가상은 해남동초 1학년 26명(김서현, 김유주, 김희서, 최혜선, 허예슬, 김건범, 김나현, 김아린,



천현호 학생 작 ‘바닷속 고래’.

김은엘, 김해찬솔, 한지은, 김보민, 김승혁, 문세별, 신지아, 유하린, 김소민, 이하린, 강인영, 고을, 김설아, 김형우, 천아윤, 허하린, 이소율, 임진호)과 2학년 10명(노인후, 문인우, 백승연, 윤소정, 윤여준, 최이준, 김여원, 김원재, 박지윤, 한지민)이 받았다.

천현호 학생은 작품 ‘바닷속 고래’로 바

위, 물품, 고래를 포함한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특히 원근법으로 표현된 고래의 입은 관찰력과 상상력이 발휘된 요소다.

김가은 학생의 작품 ‘어부’는 갈매기, 바다로 그물을 친 배, 수심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을 각각각색으로 표현했다.

니볼라 심사위원은 “참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줬다”며 “바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돌보아야 할 필요성을 되새기고 큰 변화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박현일 해남동초등학교 담당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습관을 설명하고, 이를 작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